

2장 스토리 유형

1. 스토리

—소설, 희곡, 영화 등 서사 문학의 줄거리를 통칭

서사학에서는 스토리를 플롯과 구분되는 개념어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소설가 포스터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배열을 스토리라고 하고, 인과 관계의 중점을 둔 사건 서술을 플롯이라고 했다. 대개 중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엮은 것을 스토리라고 한다. 스토리는 서사 문학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2. 스토리 텔링

—스토리텔링: '스토리(story)+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 축적된 정보 즉, 데이터를 주제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로 꾸미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이야기 즉,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스토리 텔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스토리 유형

- * 자연주의—리얼리즘—사회주의적 리얼리즘—낭만주의 리얼리즘—마술적 리얼리즘—비판적 리얼리즘—시적 리얼리즘—세태소설—하이퍼 리얼리즘
- * 가족사—가정소설—가족소설—자전소설
- * 다큐멘터리—르포—기록문학—보고문학
- * 농민문학—도시소설—해양문학—디아스포라(이주문학)
- * 판타지—환상주의—동화—우화—미래가상—에스에프—마술적 리얼리즘
- * 영웅소설—위인전—평전
- * 풍자—알레고리 / 로맨스 / 심리 / 감각 / 부조리 / 알레고리 / 상징주의
- * 장르—추리—스릴러—SF—직릿
- * 감상주의, 계몽주의, 관념적, 현학적, 그로테스크, 엽기적, 오마주, 패러디
- * 페미니즘—휴머니즘—과시즘

4. 시놉시스 [synopsis]

—간단한 줄거리 또는 드라마의 개요를 이르는 말.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알기 쉽게 간단히 적은 것을 말한다. 흔히 줄거리 또는 개요·일람이라고 한다. 시놉시스는 작품의 의도가 무엇이고, 작가의 주관은 어떤 것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시놉시스에는 주제, 기획 및 집필의도, 등장인물, 전체 줄거리의 4가지 기본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시놉시스의 예

--『오이대왕』,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사계절1318문고

1972년 독일에서 출간되어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오이대왕』은 국내 청소년문학 외서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 입지를 굳힌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를 국내에 거의 처음 소개하는 역할을 한 이 작품은 전형적인 동화의 제목과 삽화 이면에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을 담고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계절1318문고’를 사랑하는 많은 성인들의 입에도 꾸준히 오르내려 왔던 작품이다.

볼프강네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누나, 동생과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다. 부활절 연휴 어느 날 아침, 볼프강네 집에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듯한 오이 모양의 생명체가 나타나더니 자기는 지하실에 살고 있는 쿠미-오리 2세 대왕이라면서, 신하들의 반란으로 내쫓김을 당했으니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가족들은 자기네 집에서까지 대왕 행세를 하며 권위적이고 오만하게 구는 불청객을 탐탁찮게 여기지만, 오직 아버지만은 오이대왕을 극진히 대접하며 오이대왕이 권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문제는 오이대왕이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는 기미를 느끼고 식구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데서 발생한다. 식구들이 아버지의 권위와 엄격함에 눌러 비밀을 한 가지씩 지니고 있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엄마는 아버지 몰래 비싼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을 숨기고 있고, 누나는 아버지께 대한 불만이 가득한 일기장을 갖고 있으며, 볼프강은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수학 시험지에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가야 한다. 오이대왕은 비밀의 증거들을 슬쩍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유일한 후원을 보내는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 한다. 교활하고 야비한 오이대왕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보였던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불신이 숨어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작품 안에서 오이대왕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오이대왕은 볼프강네 가족 말고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른다.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 오이대왕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만, 어차피 사진에도 찍히지 않으니 곧 포기하고 만다. 여기에서 이미 볼프강네 가족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알리는 것에 의욕을 잃은 사람들임이 나타나고, 오이대왕은 바로 가족들이 갖고 있던 케케묵은 문제들 그 자체가 된다. 작가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러 문제가 발생해도 꺼내 놓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가족들의 모습을, 축축하고 물렁한 데다, 싹이 난 감자 따위나 먹는 불쾌한 존재인 오이대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오이대왕이 가족들 앞에 나타나 그들 사이를 휘저어 놓으면서 어머니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볼프강의 성적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어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할아버지의 소외가 드러난다. 또한 아버지가 오이대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권위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오이대왕의 모습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0점짜리 수학 시험지에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선생님의 명령과 낙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면서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볼프강의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봄 직한 일이다. 자신감에 가득 찬 우등생 누나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께 대한 반항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볼프강은 누나에게 동질감을 느껴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낙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며 씩씩한 노년의 심경을 토로하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볼프강은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결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도 결국 오이대왕의 출현으로 생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태도에 변화를 보인다. 스스로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 허허로운 권위적 태도를 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가 오이대왕의 출현 시점을 하필이면 부활절로 설정한 것인지, 작가의 의문스러움에 허를 내두르게 된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 모두 강압적인 아버지와 거만한 오이대왕을 미워하는데도 혼자서만 그들에게 애정을 품고 있던 막내 닉은, 한 차례 폭풍 같은 사건이 휘몰아치고 나자 결연한 태도로 오이대왕을 유모차에 실어 밖에 내다 버린다. 이는 어쩌면 가족들을 감싸고 있던 불신의 자장 밖에 있던 순수한 닉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볼프강네 가족이 오이대왕의 출현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집에서 오이대왕이라는 짐덩어리를 벗어 버림과 동시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뇌스틀링거는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평범한 가정에 오이대왕이라는 가상의 생명체를 등장시키는데,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극단적인 에피소드를 나열하기보다는 흥물스럽고도 교활한 오이대왕을 통해 이를 더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편집자 작성>

--『야살쟁이록』, 김종광, 우리교육

주제 기획 및 작품의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즈음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을 즈음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유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빛나는 87년, 올림픽이 치러졌던 88년, 전교조의 깃발이 섰던 89년에 고등학교를 다녔다. 『야살쟁이록』은 우연히도 87~89년에 고등학교를 다닌 한 시골 고빠리의 비망록이다. 5공의 악령이 낄낄대고 있던 그 시절, 작게는 충남 서해안 작은 고을의 고빠리들이 스승과 벗들과 세계와 교감해 나가는 이야기이며, 크게는 '전교조 꽃등 세대'의 무수한 기록 중 하나다. 87~89년을 각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이 묵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줄거리를 대신한 세부 항목:

1부 <7반 실록>

실록의 첫 장 | 특별반 | 벽지 고등학생 연구 | 무룡대는 문맹이었다 | 담임의 이상한 인기 | 도서관 | 호환마마보다 어려운 호헌 | 짤짤이 | 반대사인 | 학급문고 | 담임은 왜 경찰서에 다녀왔는가 | 민주항쟁기념일 | 작법을 찾아서 | 지금 세상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촛불잔치 | 진정한 시작 | 왜 우리는 파쟁적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가 | 배인, 개기다 | 방중 보충수업 희망원 | 금강 대홍수 | 석태가 해냈다 | 반납하라, 반납하라! | 펜팅 | 스승쟁투 | 물충전투 | 가을을 태우는 파업 | 훈주교의 역사 | 미해 | AIDS | 물리, 사라지다 | 시인 | 두발 검사 | 대선 정국 | 모의 투표에 관한 회의록 | 왜 소설을 쓰려하는가 | 교회 순례 | 전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 물리의 귀환 | 담임이 잘못된 것도 있다! | 실록, 마침표를 찍다

2부 <야살쟁이>--이사 | 혼맥 | 자살을 꿈꾸는 자 | 수학여행 | 결성 | 서투른 비상 | 어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 이상한 수학여행 | 생일 | 설문 조사 | 산고 | 해미 공군기지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침묵 | 2다 | 교복자율화

3부 <파국>---뜨거운 변신 | 수금 | 기표를 만난다면 | 그네에 실은 꿈 | 청문회 | 태생적 차이 | 결혼식 | 지국 사람들 인터뷰 | 계룡산에서 | 파국 | 선거 | 영화 | 패싸움 | KMS는 대가리를 박아라 | 국사, 마지막 단원을 배우다 | 수학을 포기하다

4부 <89년 12월 31일>

--『완득이』 김려령, 창비.

고딩 완득이가 교회에서 담임선생님인 똥주를 제발 데려가 달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된다. 거칠고 욕 잘하는 담임선생님은 완득이를 달달 볶지 못해 안달이다. 학교에서 외적으로는 문제아에 공부도 못하는 반항아 완득이는 학교에서 정한 빈민 수급대상이다. 공부도 못하고 반항적인 기질이 많으면서, 싸움 하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완득이다. 난쟁이 아버지와 삼촌(친삼촌은 아니다. 아버지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걸 아버지가 거둔 것) 남민구와 옥탑방에서 살지만 절대 기죽지 않던 완득이의 인생은 괴짜 선생 똥주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꼬이기 시작한다. 난쟁이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한국 제일의 지루박 춤꾼이고, 삼촌 남민구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인이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춤숨씨가 수준급이다. 춤을 좋아해서 언제나 춤을 추고 싶어 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아버지와 삼촌은 지하철 외판을 한다. 아버지의 꿈은 완득이가 싸움을 그만하고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다. 건너편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총각 담임 똥주. 수급대상자에 멋대로 이름을 올려놓고 햇반을 비롯한 수급품을 빼앗아 가더니, 이젠 얼굴도 모른 채 잊고 살았던 어머니를 찾아 완득이와 마주치게 만든다. 남몰래 불법체류 노동자를 돕는 일을 하던 똥주가 베트남 출신인 완득이의 어머니를 찾아낸 것이다. 처음에는 멧쩍기만 하던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애뜻함을 배운 완득이는 모범생 정윤하와 가까워지면서 알콩달콩한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킥복싱을 배우면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완득이는 진 핏수만큼 이기고 킥복싱 관장님을 찾아가겠다는 목표도 세우게 된다. 완득이의 아버지도 담임 똥주의 도움으로 삼촌과 함께 댄스 교습소를 열어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다. 괴짜담임 똥주, 알고보면 자원봉사만 자처하는 이 시대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이버지식인-wisdk557님이 2009.8.20에 작성한 줄거리>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민음사세계문학전집

이 책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51년 출판된 이후, 사춘기 청소년이 사회와 가정에 대해 느끼고 있는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지금도 영미 문화권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읽히는 작품이다.

뉴욕 맨해튼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사립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를 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1인칭 시점으로 대화하듯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짧고도 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상류층과 부유한 사립학교라는 환경에 있는 인간 군상의 비열하고도 하찮은 삶의 단편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 세 번째 사립학교에서 쫓겨난 홀든, 어른 세계의 <허위>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는 순수함을 지닌 그는 여느 친구들처럼 그 허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없다.

홀든 앞에 펼쳐진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듯하다. 홀든은 센트럴 파크의 연못에 사는 오리들이 겨울에 수면이 얼면 어디에 가는지 염려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도, 아니 누구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기숙사의 친구들도, 심지어 오래 데이트한 여자친구까지도 기성 세대와 똑같이 <주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의문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홀든은 그런 세상을 견딜 수가 없다. 결국 학교를 나왔지만 현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간 헤매 다니는 뉴욕의 어두운 밤만큼이나 어둡다.

하지만 홀든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동생 피비. 피비의 순수함과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홀든이 이 세상에서 가진 마지막 끈이다. 홀든은 이를 동안 정처 없이 헤맨다. 사춘기의 터널

처럼 그의 방황의 시간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결국 그는 피비를 찾아간다. 어두운 터널에서 빛줄기를 찾듯, 피비를 찾아가서 만난다. 그리고 떠나겠다는 말을 한다. 뉴욕을 떠나겠다고, 집을 떠나겠다고, 부모를 떠나겠다고…… 그것은 허위에 가득 찬 주류만이 판치는 세상과의 결별을 뜻하지 않을까.

하지만 피비는 오빠를 따라나선다. 그들은 공원으로 간다. 그리고 떠나지 못한다.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닐까. 떠날 수 없는 것이 결국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 어른의 세계로 내딛는 발걸음이 아닐까. 홀튼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뿐이라고, 넓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려 하면 얼른 잡아주는 일,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것은 넓은 호밀밭에서 세상에서, 추락하려는 순수함을 잡아 일으키고 싶은 지킴이가 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J.D. 샐린저는 50년 전 이 소설을 썼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허위로 가득한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나는 이 소설을 청소년기의 성장만 다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이든 어른이 되어 세상에 적응해 살고 있는 어른이든, 회의하고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믿는다. 결국 홀튼은 정신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살려는 사람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아닌가. 정작 치료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인데도, 하지만 이 글은 병원에서 회복한 홀튼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거는 데서 시작한다. 그 회복이 허위의 적응이 아닌, 진정한 회복일 수 있음을 믿고 싶다. <네 아버지식인 ethos44님이 작성한 독후감 2009.2.26>

--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제6회 사계절문학상 대상작

김해원의 은 제목을 읽자마자 밀려드는 ‘야릇한’ 추측 때문에 2차 성장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까 기대하게 된다. 사계절문학상 심사위원들(오정희·박상률·김중혁)마저 주위 눈치를 보며 몰래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털’이 머리털임을 깨닫고 흥미가 덜해질 무렵, 머리털 이야기의 진짜 재미가 시작된다. 이 작품에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평대로 “주인공은 문제아도 장애인도 아니다. 평범한 아이다. 눈물날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으며, 대단한 모험을 겪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소설 주인공들이 대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거나, 버거운 집안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거나, 유난히 감성이 섬세해서 해결 지점을 찾기도 어려운 내적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흐름을 갖고 있었다면, 『열일곱 살의 털』 주인공 일호는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공부도 꽤 하고 단짝 친구도 있고 집안 어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다. 단 특별한 점이 있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집을 나가 여행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은 일호가 할아버지의 이발소 의자에서 열일곱 살 생일을 맞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머리카락과 관련하여 유구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일호는 해마다 생일날을 할아버지가 해 주는 이발로 맞이한다. 그러나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욕망이 뒤엉켜 자라고 있다고 믿는 이발사 할아버지의 손에 별다른 저항감 없이 머리를 맡기는 일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머리털을 사수하기 위한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일호가 사수하려는 것은 제 머리털이 아니다. 대한민국 열일곱 살들의 머리털이다. 학교가 인정하는 모범 두발로 아이들 사이에 ‘범생이 1호’로 통하던 일호는 체육 선생이 두발 규정을 어긴 아이의 머리에 라이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는’다. 한 번도 싸워 본 적 없는 일호가 싸움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순간이다.

온순한 ‘범생이’ 일호가 고등학생에게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을 학교와 한판 싸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일호는 “왜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되는 걸까. 나는 너무 물렁하거나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힘든 싸움의 길로 들어선 뒤다. 일호는 상담실에 불려가 혼자 남겨졌을 때, 누가 볼까 봐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칠 만큼 물렁하지만, 체육 선생에게 사죄하는 대신 두발 규제 반대 시위를 계획할 만큼 단단하기도 하다.

작가는 일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고 설정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일호에게 아버지는 ‘분명히 있는데 느낄 수 없는’ 존재다.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할아버지가 굳건하게 서 있어선지 일호에게서 부성의 결락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순간에, 느닷없이 17년 동안 부재했던 일호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는 “햇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던 여름날 아침”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레 이발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온 뒤, 그 길로 먼 여행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p99)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팔팔한 청년에게 이발사로 살아가게 될 삶은 답답하고 지리멸렬했을 터이다. 일호는 우리가 흔하게 상정하는 아버지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일호가 두발 규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 일호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싸워 보지 않았던 할아버지 역시 외로운 싸움의 길로 들어선다. 일호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이발소인 태성이발소의 3대 이발사로, 마포구 도원동 일대의 재개발을 놓고 주민들의 견이 찬반으로 갈리자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니 반대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지요.” 하고 ‘순수한 애국심’을 발휘한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르신 참 답답하십니다.” 하는 말뿐이다. 그런데 칠십 평생을 할머니 말대로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을 위인’으로 살았고, “이발 그거 몇 분이면 후딱 해치우는” 걸 가지고 “가업을 잇느니 마느니” 하면서 “굴러들어온 돈복을 차 버린” 고지식한 양반이 나라에서 하는 일에 처음으로 의구심을 가진다. 그리고 재개발로 주민들이 고루 덕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세입자대책위원회에 합세하여 시위에 나선다. 비록 할아버지의 시위가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세입자의 입장에 선다는 한계에 부딪쳐 타다 만 불꽃처럼 사그라지긴 해도 말이다. 할아버지는 훗날 일호가 다니는 오정고등학교 학생들이 ‘별사건’이라고 부르게 될 일을 벌이면서 당신이 일호의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없이 드러내고, 일호는 할아버지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단단히 땅에 발붙이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김해원은 고종이 단발령을 내렸을 때 저갯거리를 돌아다니며 상투를 자르던, 이제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체두관이라는 관직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체두관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머리털의 상징성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 정문에서 두발 규제 반대 시위를 한 경험이 있는 중앙고등학교 이하람 군을 만나 경험담을 상세히 듣고 일호의 캐릭터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일호는 동네 편의점 앞이나, 피씨방, 학원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리숙한 고등학생이지만 이야기를 힘 있게 끌어갈 만큼 다부진 의지를 갖춘 아이다.